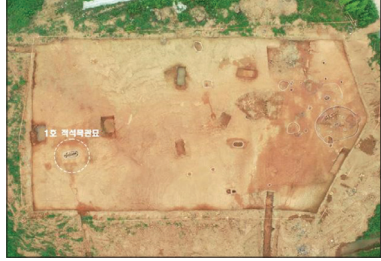


‘김제 대동리 유물산포지 V’ 성과 공개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사업단·기호문화재연구원, 7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설명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사업단(단장 김민호)과 (재)기호문화재연구원(원장 고재용)은 오는 7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2.3공구) 내 김제 대동리 유물산포지 V 지점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한다.



김제 대동리 유물산포지 V 전경



김제 대동리 유물산포지 V 출토유물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사업단은 전국간선도로망 중 동서3축 구축을 위해 55.1km 고속국도를 건설 중이다.(김제시 진봉면~완주군 상관면)

2022년 1월부터 김제 대동리 유물산포지 V에 대한 시굴조사를 착수하였고 6월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 초기철기시대 적석목판묘 1기, 수혈유구 2기,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1기, 시대미상 수혈유구 2기 등 총 2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적석목판묘에서 경형동기 8점, 청동패식 10점 등의 청동제품과 다량의 대동옥, 옥구슬 등의 장신구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적석목판묘에서 출토된 경형동기(鎗形銅器)는 8점이며, 크기는 지름 5cm 두께는 2mm 정도로 뒷면 중앙에는 뉴(꼭지)가 있어 의복 등에

부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앞면은 둥글게 볼록하여 빛을 더 넓게 반사시키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형동기는 2016년 합평 상곡리유적(한국문화재단)에서 4점이 출토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다. 청동패식(靑銅牌飾) 10점은 ? 모양으로 현재까지 출토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뒷면에 한 쌍의 뉴(꼭지)가 부착되어 있어 경형동기와 함께 의복 등에 부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동옥과 옥구슬은 목걸이와 팔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무기류는 출토되

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의례 등과 관련된 제사장 등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출토된 경형동기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출토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성과를 통해보면 기원전 4세기경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번 김제 대동리 유물산포지 V에서 출토된 경형동기와 청동패식은 만경강유역 초기철기시대의 유물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당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남해안지역과의 관련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성과로 판단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관광두레 공모 전국 군 단위 최다 선정

문체부·한국관광공사 주관... 주민사업체 8개소 선정 쾌거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2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에서 전국 군 단위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일 완주군은 지난 7월부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 심층 심사를 거쳐서 최종 8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반죽(힐링치유프로그램) △산들꽃(꽃차제조 및 체험프로그램) △너나들이(플리마켓 및 친환경 체험) △공동체공간 수작(전통주 생산 및 체험) △주바레 공동체(업사이클링 제품생산 및 체험) △달달구리(지역 시그니처 베이커리 생산) △그계절,완주(농장체험 프로그램) △삼산도가(전통주생산 및 체험)으로 총 8개소다.

공모에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최장 5년간 최대 1억1000만원 내에서 교육·건강·상담·법률·세무·마케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광두레”는 지역의 매력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식음·기념품·여행·체험 등의 분야의 관광 사업체를 창업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기까지 개별 컨설팅 등 큰 조력자 역할을 한 황미선 완주관광두레 PD는 “완주는 공동체 기반의 주민들 활동이 무척 활발하다”며 “선정된 주민사업체들이 창업 지원부터 네트워크 구축, 관광 상품 개발과 판로개척까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올해 완주군은 만경강 중심으로 한 생태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며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공동체들과 함께 관광콘텐츠 개발 등에 적극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비밀의 정원 · 교도소 세트장서 ‘익산에 ALL 페스타’

‘2022~2023 익산 방문의 해’ 맞아 3·4·12·17·18일 총 5일간 진행

비밀의 정원과 교도소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가을 축제가 익산에서 펼쳐진다.

익산시는 50년만에 모습을 드러낸 비밀의 정원 ‘아가페’와 드라마·영화 촬영지인 ‘교도소 세트장’을 배경으로 한 이색축제 ‘익산에 ALL 페스타’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22~2023 익산 방문의 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3일 토요일부터 4일, 12일, 17일, 18일 총 5일 동안 진행된다.

아가페정원 공연은 유아함이 컨셉이다. 연주회를 배경으로 영국 포털기타와 명품 메타세쿼이아 산책로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다. 조용히 산책을 즐기거나 사진을 찍기 위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아가페 정원에 클래식, 팝페라, 보컬과 같은 콘서트가 열린다.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리고 관광객들에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한편 교도소 세트장은 재미와 소통을 강조한다.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인 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교도소 세트장’에서는 풍선쇼, 마술쇼, 저글링, 버블쇼와 같은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연 시간은 아가페 정원에서 14시 30분 부



터이며, 교도소 세트장은 11시 30분에 시작해 각각 1시간씩 운영된다. 한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아가페 정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2주 전에 입장가능 여부를 아가페 정원(843-7294)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는 공연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아가페정원은 엘레강스풍 정장, 한복, 양산·우산·부채 등을 소품으로 준비하고 교도소 세트장에서는 죄수복이나 청바지, 오렌지색 등 단체복 의상을 드레스코드로 추천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문화누리 문화박스’ 사업 장수서 시작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문화누리 문화박스’ 사업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 취약지역을 조사한 결과 인프라 및 접근성의 부족으로 카드 이용자들이 문화 향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문화박스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 이용률이 가장 적은 지역인 장수군 내 5개 장소(장수읍사무소, 계남·반암·천천면사무소, 계북면종합복지회관)에서 문화누리카드로 전화 주문 및 택배 배송까지 가능한 업체의 실물 상품을 전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문화박스에서는 생활한복, 파우치와 지갑, 패브릭아트 가방, 현대식 청사초롱 등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재단에서 제작한 비대면 문화누리센터 안내 책자가 비치돼 있어 다양한 상품을 지면으로 살펴보고 전화로 주문해 배송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 또는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박물관, 무주안성초·구천초서 맞춤형 문화체험 진행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김은희)이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우수 자원을 지역사회와 소통·공유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박물관이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박물관, 지역속으로’라는 주제로 지역 학생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문화체험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과 8월 31일 각각 무주안성초등학교와 구천초등학교를 찾아 우리 기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에서는 전북대 박물관의 대표 기록 문화유산인 고문서 가운데 조선시대 전답매매 문서, 문안단지 등을 복제해 선보이고, 전문가



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도슨트 시간을 통해 고문서가 갖는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선현들의 삶의 모습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능화판찍기, 목판찍기, 시전지문양 찍기 등 우리나라 전통 인쇄문화 체험과 학습 효과 증대를 위한 활동지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대학 3기 2학기 교육생 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0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2개월 간 국내 정상급 교수진들과 함께 인문예술 융·복합 교육 ‘팔복 예술대학 3기 2학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팔복예술대학’은 문사철 인문학 강의 기반하에 예술가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온·오프라인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주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교수로 참여해 만족도 높은 수업을 진행해 왔고, 600여 명에 달하는 전주 예술

인·시민 수료생을 배출했다.

팔복예술대학 3기 2학기 과정은 △기획자, 초보에서 프로되기 △테마가 있는 자서전 △예술가의 사생활 △이제 나도 배우다 △(특강)어른의 여행을 위한 여행인문학으로, 4개의 정규 강좌와 1주치의 특강으로 구성됐다.

한편 팔복예술대학 3기 2학기 과정은 오는 2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예술인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